

# “제본도 작가혼 담은 예술품”

## 국내에 제본학교 설립, 후진양성 꿈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Recto-Verso(렉토 베르소). 프랑스어로 앞장과 뒷장을 뜻하는 이곳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를리외르(예술제본장정가)자격을 획득하고 지난 98년 10월 귀국한 예술제본장정가 백순덕(38)씨의 작업실이다.

11시. 늦은 아침을 대신해 차려진 구수한 빵 굽는 냄새가 5월 들어서만 9번째라는 잡지사 기사를 맞았다. 5월에만 10번의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백씨의 푸념은 지난 98년 예술제본장정 공부를 위해 7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비하면 호사스럽기만 하다.

하물며 그의 나이 28세에 떠난 유학과정도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술제본장정이라고 했을 때 그를 만류하는 주위의 반응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정작 백씨는 남들이 극구 만류하는 예술제본장정을 배우기 위해 100여 곳이 넘는 학교를 돌아다녔다.

100여 곳이 채워질 무렵, 백씨는 단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술제본장정이라는 작업과 맞닥뜨리게 됐다. 백씨를 붙잡은 건 너무나도 멋들어진 학교 분위기. 학교 건물, 심지어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중세 어느 곳에선가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그와 정서가 맞았던 탓일까. 3년만에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렐리외르(Relieur·예술제본장정가)' 자격증을 획득하고 또 다시 현대적 예술제본장정을 배우기 위해 '이틀리에 베지네'에서 3년을 수학했다. 98년 10월, 동양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와 고국에 대한 향수를 이기지 못한 그는 7년간의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막막했죠. 그렇지 않아도 예술장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나라가 IMF까지 겪고 있어 굶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고상한 취미생활'이나 즐기자고 생각했죠."

귀국 이듬해에 홍익대학교 근처에 지금의 작업실 렉토 베르소를 차리고 '고상한 취미' 생활에 빠질 뻔한 그를 구해낸 건 '문학과 지성사'의 '깊이 읽기'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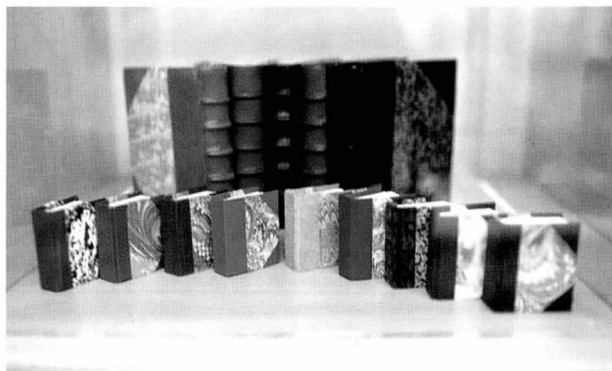
'깊이 읽기' 시리즈를 출간하던 출판사에서 해당 작가에게 '간직할 만한 한 권의 책'을 선물하기 위해 백씨에게 작업을 의뢰한 것이다. '깊이 읽기' 시리즈 외에 구분창(사진집), 황순원, 이문열(불어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씨 등의 책이 백씨를 통해 호사를 입었지만 모든 책들이 백씨를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얼마 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임원 한 분이 제본을 맡기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보기엔 굳이 고급스럽게 장식할 만한 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제본사에 가보시라고 그랬죠."

백씨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제본 당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걸러내 진다. 일단 백씨에게 맡겨진 책들은 백씨의 손에 의해 한 꺼풀씩 벗겨진다. 서체, 삽화, 종이의 질, 겉표지 등이 제본의 질을 가늠하는 요소가 된다.

제본 작업이 결정된 책들은 새로 태어나기 위해 표지가 뜯겨지고 내지가 한장, 한장 분리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것이 다시 몇 일 동안 프레스기로 눌러지고, 다시 한땀 한땀 꿰매지면 내지가 완성된다.

내지가 완성되면 겉 표지 작업이 진행된다. 겉 표지에는 판지와 염소, 양, 소가죽 등이 이용되는데 외국의 경우는 작



◆ '앞장과 뒷장 Recto-Verso'에 전시됐던 작품들.

가와 상의가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경우엔 전적으로 백씨의 결정에 맡겨진다.

표지가 다 씌워지면 제목을 표기하는데 이 과정 역시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제본 가격은 표지 작업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외국의 경우 다이아몬드로 치장 작업을 하기도 한다. 3~40만원에서 몇백 만원까지 차이 나는 가격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몇백 만원을 호가하는 작업은 언뜻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정작 작업자인 백씨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여건보다는 의뢰인이 가져온 책의 의미를 먼저 살핀다.

'박종철군 일대기', '전태일 평전' 등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가지는 책이다. 특히 '전태일 평전'의 경우 넉넉한 시간을 가진 작업을 통해 전태일의 모친인 이소선씨에게 전해 주고 싶은 책이란다.

귀국 후 4년 가까이 그가 한 일은 '고상한 취미'가 될 뻔한 예술제본장정작업 30여권과 활발한 교육활동. 예술제본 학교를 세우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그가 국내 시장에 미약하기 그지없는 예술장정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홍보를 겸한 강의를 하고 있다. 도서출판 현암사와 명지대에서 강의가 있었지만 좀 더 의미 있게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두 곳의 강의를 사양했다.

현재로선 그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은 디자인 하우스, 환기 미술관, Recto-verso 작업실 3곳뿐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디자인하우스강의는 7월 첫째 주부터 2개월간 열리며, 환기미술관에서도 7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그와 가장 밀접한 강의를 원한다면 작업실 Recto-verso를 찾으면 된다. 40여명의 학생들이 두 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다.



◆ 작업실에서 작업을 준비하는 백순덕씨.

그가 가르치는 강의는 프랑스에서 배웠던 그것과는 다르다. 프랑스에서 그가 배웠던 것은 그야말로 제본에 관한 모든 것으로 ‘책’ 그 자체를 배웠다. 하지만 한국의 제본 풍토를 직접 겪은 그가 표지 다지기 자체로 강의를 대폭 축소시켰다. 이같은 결정은 내용보다는 결과물을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도 한몫 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배운 예술제본장정의 호사를 입을 만한 책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종이질이 문제이고, 좋은 내용, 좋은 서체, 예쁜 삽화, 아름다운 표지등이 잘 만들어져야 예술 제본을 할 수 있다. 책이 전해주는 의미를 찾는다면 모를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예술 제본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책이 많지 않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책에 호사를 입히기 보다 호사를 당하고도 남은 책 한권 만들어 달라는 백씨의 외침이 흘러보낼 공허한 외침만은 아닌 듯 싶다.

“사장님 좋은 책 한권 만들어 주십시오”

이용우기자  
 <photoyw@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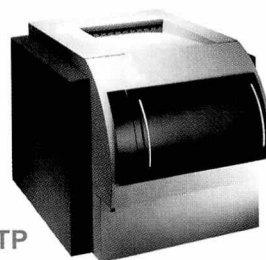
컬러스캔 및 CopyDot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가용 A3+ 평판스캐너

ScantMate F14

DotMate

ScanMate

필름 출력기 & 폴리에스터 CTP



DotMate 7500 CTP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7층 TEL. 2275-6611 FAX. 2275-6331 www.microqnix.com

